

5·18 아픔 딛고 현대미술 새로운 길 조명

방구석 1열 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 <하>

광주시립미술관의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의 제3부 '시대의 증언'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비판적 현실 인식,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 중 새까만 형태로 표현된 사람들의 형상이 가득한 작품이 먼저 눈에 띈다. 작품의 주인공은 '쓰러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1980년 5월 광주' 연작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 도미야마 다메코다.

그녀의 '1980년 5월 광주' 연작은 1980년 도쿄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 간의 작품 활동에 몰입한 이후 탄생했다. 흑백의 간략한 판화기법으로 표현된 연작 중 일부인 '죽은 자들'은 잔인하지는 않지만 마치 실제 광주의 거리에서 굳어가던 뻣뻣한 시체들처럼 느껴지는 등 처연하다.

'죽은 자들'과 비슷하나 조금 더 사실적이고 잔인하게 묘사된 작품은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연작' 중 '하늘과 땅 사

사실적 묘사 강조 1980년 오월 광주의 현실
색·획 통해 표현한 공간 작가 개인의 삶 조명

이 2'. 5·18민주화운동 이후 '하늘과 땅 사이' 연작을 제작하며 화가로서 사회의식을 실천한 그는 붉은 회색조의 화면에 충상을 입거나 다리가 잘려나간 시민에서부터 구타를 당해 죽임을 당한 사람 등 거리의 시신들을 화면 가득히 형상화했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선 이 작품은 시신 앞에서 절규하며 슬퍼하는 이, 분노에 찬 사람 등 생존한 이들의 처절한 심정까지 화폭 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 아닌 자연과 동식물을 통해 황량한 시대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파헤쳐진 비탈길과 언덕을 콘테와 수채화로 그려낸 작품 '동토'는 마치 사람의 흉부 일부가 파헤쳐져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것처럼 스산하다.

말라 비틀어진 대구포를 목탄과 먹으로 표현한 '대구포' 또한 암울한 당시의 모습을 표현하듯 황망하기까지 하다.

민중 미술가인 홍성만 작가는 '오월-



도미야마 다메코 작 '자유광주'

19-가자 도정으로', '오월-25-대동세상 1' 등 판화를 통해 5·18을 조명했다. 이 중 '오월-25-대동세상 1'은 1980년 5월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당시



강연균 작 '하늘과 땅 사이 2'

대학신문, 교지, 책 등의 표지나 삽화 및 발 등에 널리 활용되기도 했다.

제4부 '변화와 확산'은 1990년대 이후 현대미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시선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띈 작품은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운 손아유 작가의 후기 작품에

해당하는 '공간 간격 AC97-03'이다.

'선과 색채의 예술'로 대표되는 그의 미술세계를 담은 작품답게 구불구불한 선과 그 사이를 유평하는 듯한 색채가 강렬하게 다가온다.

전시에서는 뚜렷한 색을 찾아보기 힘든 그의 초기작인 '기억의 흔적'과 무수히

많은 색과 점들을 중첩해 표현해 낸 '드러나는 것, 잡기는 것', 이전 작품에서는 없었던 강렬한 색채와 흘러내린 물감이 만드는 점과 선을 통해 공간과 사이를 탐구하는 '색의 위치 OC85', '색의 위치 OC 87' 등도 관람할 수 있다.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서 살며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절망, 좌절, 아픔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전통적인 소재의 이미지에 녹여낸 송현숙 작가의 작품 세 점도 전시됐다.

정제된 몇 번의 선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그녀의 작품 제목들은 대부분 '5획', '8획' 등 '획'으로 표현된다. 제목에 들어간 숫자는 실제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녀가 그린 획의 수로, 그녀는 계산이나 무화구나 나무 수액 등을 용매로 안료를 섞어 바른 이른바 서양의 '템페라 기법'을 사용해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그녀의 작품 배경이 되는 차분한 무광의 흑색, 흰색, 흑색 등 배경은 그 무엇보다 동양적이지만, 이 색을 창조하는 것이 서양 물감인 템페라라는 점에서 동서양의 융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두 개의 나무 막대기로 만든 거치대에 걸린 거즈 봉대가 인상적인 '8획'과 기와 지붕과 우물 등 등장하는 '79획' 등에서는 간결하고 깊은 정적 및 숨겨진 이방인으로서의 삶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숨겨진 듯 고요하면서 절절하다.

/오지현 기자

해설과 함께 듣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27일 광주시향 오텐 콘서트...문예회관 소극장
지휘 홍석원, 테너 강요셉·소프라노 박소영 협연

광주시향교향악단의 GSO 오텐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는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향의 '오텐 콘서트'는 음악의 스토리를 해설로 풀어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다. 광주시향은 이번 공연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하는 샤를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주요 곡과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로 들려준다.

이날 공연은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파리스 백작과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유모의 말에 줄리엣이 조금 더 젊음을 즐기고 싶다고 부르며 부르는 아리아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서'와 로미오

가 줄리엣의 방 창문을 바라보며 부르는 아리아로 유명한 '사랑, 사랑! 아 떠오르는 태양이여!'로 막을 올린다. 이어 사랑하지만 떠날 수 없는 둘의 슬픔을 노래하는 '가세요! 용서하겠어요...우리의 첫날 밤'과 '아! 이곳은 어둡고 조용한 무덤' 등을 차례로 선보인다. 로미오 역은 테너 강요셉이, 줄리엣 역은 소프라노 박소영이 맡는다.

독일 베를린 도이체 오페레타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전속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강요셉은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비엔나 슈타츠 오페라, 파리 국립오페라단 등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 뿐만 아니라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국내에서도 활발



테너 강요셉



소프라노 박소영

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성악과,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소영은 지난 2019년 오페라 '미술피리' 밤의 여왕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데뷔했으며, 현존하는 아시아인 소프라노 중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밤의 여왕 역을 맡은 소프라노기도 하다. 그녀는 미국 제57회 그레미 어워드에서 최고 엔지니어 상과 최고 클래식 음반상을 수상했다. /오지현 기자

서양화가 고명인 초대전
내달 6일까지 전남대병원

서양화가 고명인 초대전이 다음달 6일까지 전남대병원 1동 1층 CNUH 갤러리에서 열린다. '백신이고 싶다'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는 치밀한 사실묘사를 착시 효과로 활용한 고명인 작가의 작품 25점을 만날 수 있다.

고 작가는 현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공허와 고독, 깊은 밤의 환상여행, 희비가 희미해진 지난날의 기억 또는 추억 등을 사색의 단편들로 엮어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가'를 화두 삼아 사색하거나, 지나온 삶을 회상하며 인생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전시다.

고 작가는 광주교대와 동대학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대만 '고명인' 전, 상형전, '프레임을 통하여 나를보다' 전 등 다수의 개인 및 단체전에 참여했고 현재 '상형전' 회원과 광주교육대학교 강사, 하백초등학교 교사로 활동 중이다. /최진희 기자

도심 문화·예술 빛 밝히는 미디어아트

이이남, 서울시 최첨단 교통 서비스 스마트텔터서 전시

도심 한복판,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거처하는 버스정류장에 미디어아트 스타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는 곳은 서울 중앙버스정류소의 스마트텔터 미디어파사드.

스마트텔터는 기존 낙후되고 불편했던 노후 승차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최첨단 교통 서비스다. 공기청정기, UV에어커튼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버스정류장인 스마트텔터는 현재 홍대 상·하행, 합정 상·하행, 송례문 등 총 5곳에 설치됐다.

이이남 작가는 각 5곳의 스마트텔터에 고전명화에 디지털 기법을 접

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크로소버 쇠라', '김홍도-목죽도', '신-몽유도원도', '아사천에 매화꽃 피었네' 등을 전시한다.

이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북앤티', '여우와 무지개' 등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유기견들을 위한 콘텐츠 등도 전시된다.

스마트텔터 운영사 측은 "도심에는 다양한 빛이 존재하지만, 문화와 예술의 빛은 부족하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서울시 전체 중앙차로 389개소를 스마트텔터로 확장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버스정류소에서 고품격 미디어 아트를 경험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